

東洋醫學的 人間과 醫道

金 仁 洛

<目 次>	
I. 緒 論.....	第二節. 醫道論.....
II. 本 論.....	1. 治療醫學과 豫防醫學.....
第一節. 人間論.....	2. 醫學의 理想.....
1. 細胞說과 有機體說.....	第三節. 轉女爲男法.....
2. 東洋醫學의 人間觀.....	III. 結 論.....
3. 新科學의 人間觀.....	參考文獻.....
4. 東洋醫學의 人間觀의 逆機能	

I. 緒 論

醫療行爲란 醫術과 醫道가 同時에 行하여지는 것이다. 만일 醫道는 行하여졌으되, 醫術이 不足하다면 前近代의 醫術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反對로 醫術은 훌륭하지만 醫道가 결여되었으면 非人間的이라는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醫道와 醫術은 결국 人間觀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끔씩 現代醫學이 難治病에 對하여 새로운 治療法으로써 개가를 올려 世人의 注目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人間の 疾病은 반드시 醫師가 治療해 주어야 한다는 人間觀에 근거할 때,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人間觀에 의한다면 이의 화려함, 그 表面에는 미리 주의를 하였더라면 애초에 이러한 疾病이 發生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虛點이 생긴다. 이러한 人間觀이 바로 東洋醫學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人間 스스로의 疾病治癒力에 重點을 두는 것이다. 이에 關하여 東醫實鑑에서는 「道家は 淸靜과 修養을 根本으로 삼고 醫家は 藥餌와 針灸로써 治療하니, 道家は 그 精을 얻었고 醫家は 그 粗를 얻었다」¹⁾ 고 하였다.

最近 現代物理學을 中心으로 하는 新科學運動에서도 이러한 思考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道家의 思想이 깊은 黃帝內經을 中心으로 人間觀과 거기에 따르는 醫道論을 살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초단과나 洋水검사 등의 첨단의술이 男兒善好경향이 뿌리 깊은 우리 社會에서 胎兒성감 별로 惡用되므로써 물의를 빚고 있는 現時點에서, 과거에 行하여졌던 轉女爲男法에 對하여 東洋醫學的 人間觀에 立脚하여 그 가치를 살펴 보고자 한다.

II. 本 論

第一節, 人間論

1. 細胞說과 有機體說

生命論에서 주로 論議되고 있는 代表的 學說이 두가지 있으니 細胞說과 有機體說이다.

細胞說은 生體가 細胞라는 構造單位로 形成되므로 個個의 細胞機能이 生命現象의 單位가 된다는 것이고, 有機體說은 細胞說과는 全然 反對의 立場을 取하여 細胞가 單位일 수는 없고, 生體는 全體로서 單位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²⁾

細胞說은 現代 西洋醫學의 主流를 이루고 있으며, 그 根本을 데카르트의 思考에 두고 있다.

1) 許 浚: 東醫實鑑, 서울, 南山堂, 1976, p. 69.

2) 金完熙: 新生理學總論, 서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韓方生理學教室, 1976. p. 7. 3)

즉 데카르트는 人間을 精神과 肉體로 分離하였고, 이 區分에 의하여 肉體는 各 部分의 排列과 機能으로써 完全히 理解될 수 있는 機械로 보았으며, 病든 사람은 部分品이 適切히 機能을 발휘하지 못하는 機械와 같다고 하였다.³⁾

그러므로 고장난 機械는 반드시 機術者가 고쳐 주어야 하듯이, 患者에 對하여 醫師가 治療를 해주어야 한다는 思考가 길어졌고 解剖學, 手術療法이나 遺傳因子 조작술 등의 方向으로 發展하게 되었다.

하지만 機械와 有機體는 根本적으로 다르다. 機械는 活性이 없는 物質로 構成되어 있으며, 各 部分의 構造가 機械全體의 機能을 決定하는 것이므로 이를 研究하기 위하여서는 그 部分들을 가능한 最小의 構成單位까지 分割하여 그 作動의 因果關係를 觀察하여야 한다.

反面 有機體는 生動하는 全體의 시스템으로서 全體와 部分이 相互作用하며 協力하면서 스스로의 造織을 유지하고 發展하는 創造的인 것이다.

有機體에도 機械的인 面이 있기는 하지만, 有機體에서는 全體의 必要가 部分의 機能을 決定한다는 것이 重要한 一面이다. 機械는 直線的인 因果律에 의하여 作用하지만 有機體는 순환적이며 同時的인 作用으로 그 機能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有機體的인 見解는 모든 것을 全體的인 立場에서 시스템적으로 보고 不斷히 變化하는 力動的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⁴⁾

이 有機體說이 東洋醫學의 人間觀과 접근하고 있다.

2. 東洋醫學의 人間觀

東洋醫學은 人間을 “神機之物” 또는 “小宇宙”라고 한다.

“神機之物”이란 生命의 根元을 人間의 몸 가운데 지니고 있으므로, 人間 스스로 疾病의 상태에서 力動的인 平衡상태로 回復하려는 能力이 있다는 것이다.

또 細胞說에서 주장하듯이 生體가 細胞라는 構成單位로 形成되지만, 이 細胞는 人間이라는 生

命單位의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脾臟은 그 대부분의 細胞를 24시간마다 대체하고, 胃壁은 3日만에 대체된다. 白血球는 10日만에 갱신되고, 腦속 단백질의 98%는 한달내에 교체된다. 결국 體內的 모든 細胞는 몇 해 안에 모두 바뀌어 버리지만, 오래 떨어져 있던 우리의 新舊를 알아보는 데는 아무 問題가 없는 것이니, 이들 細胞들이 全體의 均衡을 유지토록 하는 能力이 人間 自身에게 있기 때문이다.⁵⁾

“小宇宙”란 人間은 自身의 均衡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全宇宙의 一員으로서 이들과 全體의 均衡을 이루고 있으며, 宇宙도 人間과 같이 하나의 生命體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東洋醫學은 宇宙運行질서와 同行하는 삶을 누리려 하고 그 理想的인 人間象을 “平人”이라고 한다.

『素問·平人氣象論』에서는 「人間이 한번 숨을 내쉴 때 脈이 두번 뛰고, 한번 들이쉴 때 脈이 역시 두번 뛰어서, 한번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으로써 한번 숨쉬는 것으로 한다. (가슴씩) 脈이 다섯번 떨 동안 運달이 들듯이 큰 숨을 쉰다. 이를 이름하여 平人이라 하는데 平人은 病들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오늘날 1分間に 呼吸을 18회하고 脈搏이 70회 정도 되는 것을 正常人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平人이란 언제나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季節의 變化에 따라 앞서지도, 뒤지지도 않으면서 力動的인 平衡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靈樞·禁服篇』에서는 「春夏에는 人迎이 寸口보다 조금 더 크고, 秋冬에는 寸口가 人迎보다 조금 더 크다. 이와같은 者를 平人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變化하는 自然環境에 따라 끊임 없이 力動的인 平衡상태를 유지하려는 能力을 가지고 있으며, 平衡의 유지와 파괴는 生의 순환에서 끊임 없이 發生하는 自然 過程의 하나로 健康과

3) 李成範·具閔瑞 譯: 생로운 科學과 文明의 轉換, 서울, 범양사 출판부, 1985, p.7.

4) 上揭書: p.6~7.

5) 李成範·具閔瑞 譯: 上揭書. p.256~257.

非健康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은 없으며 둘 다 自然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⁶⁾

이것이 바로 東洋의 全一的이고 力動的인 人間觀인데 現代物理學을 中心으로 하는 新科學의 人間觀도 이와 유사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3. 新科學의 人間觀

宇宙를 하나의 巨大한 有機體로 본다면 그 안에는 無數한 水準의 有機體的 器官이 들어있다. 各 水準의 이 有機體들은 같은 水準의 다른 有機體들과 또는 더 높은 水準의 有機體들과 相互作用하면서 新進代謝하고 不斷한 창조 활동으로 共同 進化하는 것으로 본다.

이 多水準構造의 例를 人間世界에서 본다면, 人體는 各 器官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리고 各 器官은 組織으로, 組織은 細胞로 되어 있고, 細胞에는 細胞核이 들어 있으며, 細胞核에는 DNA가 들어 있고, DNA 속에는 누클레오티드가 있으며 이러한 關係는 궁극적으로는 原子內部的의 核子에까지 延長된다. 이러한 多水準構造에서 높은 水準의 構成體는 낮은 水準의 構成體의 環境이 되는 것이다. 各 水準의 有機體는 같은 水準 相互間과 또 그 環境이 되는 높은 水準의 有機體와 不斷히 相互作用한다. 더 나아가 個人的 環境은 社會이며, 社會는 生態界를, 生態界는 生物圈을, 生物圈은 全宇宙를 그 環境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有機體的 宇宙觀에서는 人間은 궁극적으로 全宇宙와 함께 不斷히 相互作用하고 있으며 宇宙와 함께 共同進化한다고 보여지는 것이다.⁷⁾

4. 東洋醫學의 人間觀의 逆機能

東洋醫學의 人間觀이 우수하므로서, 오히려 學問發展에 저해 요인이 된 面도 있다. 萬一 機械라면 잘못된 刺戟에는 전혀 反應을 하지 않지만, 人間은 스스로 生命力을 지니고 있으므로, 낮은 차원의 治療를 하더라도 人間の 疾病은 낮게 되며, 이를 治療한 醫師의 立場에서는 그 治療가 最上의 것으로 誤認하게 되므로 보다 나은 方向으로의 發展은 저해되는 것이다.

6) 李成範·具閔瑞 譯：上揭書，p. 299.

7) 李成範·具閔瑞 譯：p. 6~7.

예로써 肝主關節이라고 하여, 人間の 모든 臟器가 關節과 관련이 있지만 특히 肝이 關節을 主管하고 있다. 그러므로 關節病은 肝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거나, 사실 他臟을 치료하더라도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러므로 理論書보다도 단순한 臨床書인 方藥合編이 널리 쓰여지게 되었고, 심지어 崔五積이니 金四物이란 말도 생기게 된 것이다.

第二節 醫道論

만일 人間이 疾病없이 健康하였다면 醫學이란 애초에 成立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東洋醫學은 우선 절박한 현실인 疾病을 치료하는 데서 부터 시작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에만 급급할 수 없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화하여야 한다.

즉 疾病을 치료하는데 있어서도 보다 初期단계에서 치료하여야 하고, 또한 疾病의 치료보다는 예방에 힘써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疾病과 치료라는 대대적인 개념의 세계를 초월하여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므로써 疾病治療가 실제로 쓰여질 필요가 없는 세계에까지 理想을 높여야 한다고 內經은 강조하고 있다.

1. 治療醫學과 豫防醫學

먼저 治病을 살펴보자.

西洋의 解剖學에서 人體를 器官, 造織, 細胞 등의 차원으로 나누듯이, 東洋醫學에서도 인체를 表에서 裏로, 皮毛→孫脈→絡脈→經脈→六腑→五臟의 순서로 보고 있으며, 이는 또한 外邪가 인체를 들어오는 經絡의 순서가 된다.

그런데 病邪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써 우리의 인식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즉 風, 寒, 暑, 濕, 燥, 火의 六淫이 인체에 들어올 때 우리의 눈으로 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것이 인체내에서 일으키는 반응, 즉 證狀으로써 알 수 있게 된다.

그 대표적인 방법은 『素問·舉痛論』에서 黃帝가 「가령 (疾病을) 말을 해서 알 수 있고, 보아서 볼 수 있고, 脈을 잡아서 잡을 수 없는 것이 라면…」이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問診, 色診,

脈診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란 자연의 運行에 따라 時時各各 변하는 존재이므로 기계와 같이 언제나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診斷을 하는 시간이 문제시 되는데 『素問·脈要精微論』에서는 「診斷은 언제나 새벽에 行한다. 이때는 陰氣가 아직 動하지 아니하고, 陽氣도 혼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음식도 먹지 않았고, 經脈도 아직 盛하지 아니하였으며, 絡脈도 고르고, 氣血도 혼란스럽지 않다」고 하였다. 1년중의 春分, 秋分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듯이 하루중의 새벽이 陰과 陽이 균형을 이루는 때이므로, 환자의 陰陽을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이는 또한 醫師 자신으로서도 가장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그런데 진단방법에 따라서 관찰되어 지는 疾病의 범위가 정하여 진다. 그러므로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고차원의 방법이 되겠는데, 『靈樞·邪氣臟腑病形』에서 「色을 보고서 그 病을 아는 者를 明이라고 한다. 脈을 잡아서 그 病을 아는 者를 神이라고 한다. 病을 물어서 그 病을 아는 者를 工이라고 한다. ……問診하나를 알면 工이 된다. 問診과 脈診을 알면 神이 된다. 問診, 脈診, 色診을 모두 알면 神이요 또 明이다」라고 하였다.

또 同篇에서 「虛邪가 인체에 들어오면 먼저 몸이 으스스스하게 떨린다. 正邪가 들어오면 “微”하여, 먼저 色에 그 반응이 나타날 뿐 病든 사람 자신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微”란 바로 老子가 『贊玄의 章』에서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夷라고 한다.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希라고 한다. 잡아도 잡히지 아니하는 것을 微라고 한다」고 하는 의미의 微로서, 脈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脈診으로는 疾病을 알아 낼 수가 없다는 것으로 理解된다.

이것의 한 例가 바로 絡脈의 病이다. 絡脈의 病은 尺部の 皮膚에 그 反應이 나타나고⁸⁾ 寸關

尺脈으로써는 알 수가 없다.⁹⁾ 그러므로 몸에 아픈 데는 있으나 三部九候脈은 變함이 없으면 絡脈의 病이니, 繆刺法을 쓰는 것이다.¹⁰⁾

이로써 보면 ‘I’이라는 차원은 患者自身이 이미 病이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醫師가 그 증상을 물어서 病處를 아는 것이니, 이는 醫師의 基本단계이고, ‘明’이란 患者自身도 病이든 것을 모르고 있는 疾病의 初期 또는 잠복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醫師가 그 色을 보고서 病을 알아내니 고 차원의 단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素問·刺熱論』에서 「肝熱病者는 左頰이 먼저 붉어지고, 心熱病者는 이마가 먼저 붉어진다. 脾熱病者는 코가 먼저 붉어지고, 肺熱病者는 右頰이 먼저 붉어진다. 腎熱病者는 턱이 먼저 붉어진다. 病이 비록 겉으로 發顯하지 않았어도 赤色을 보고서 刺鍼하니 이롭게하여 未病을 治療한다」고 하였다.

2. 醫學의 理想

그런데 內經은 이들보다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하고 있다.

즉 「聖人治未病, 不治己病」의 第一意는 아직도 醫師가 患者를 治療한다는 차원이지만 第二意는 人間 스스로 自身の 건강을 유지하므로 醫師가 이들을 治療해 줄 必要조차 없는 차원이다.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 「病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뒤에 治療하는 것과, 혼란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뒤에 다스리는 것은, 비유컨대 목이 다르고 나서 鋸를 파고, 싸움이 일어나고서 두기를 만드는 것과 같으니, 또한 늦지 않았는가?」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養生을 하므로써 疾病이니, 治療니 하는 對立된 概念을 초월하여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素問·上古天真論』에서는 「夫上古聖人之教下也, 皆謂之虛邪賊風, 避之有時…」라고 하였는데, 內經의 原型에 보다 더 가깝다고 여겨지는 『太素』에서는 「夫上古聖人之教也, 下皆爲之」로 되어 있다. 胡澍는 그의 著 『黃帝內經素問校義』에서 爲는 化의 뜻으로써 ‘본받아’는 의미가 있다고 하

8) (素問·通評虛實論) 絡氣不足, 經氣有餘者, 脈口熱而尺寒也.

9) (素問·逆調論) 經脈之病人也微.

10) (素問·調經論) 身形有痛, 九候莫病, 則繆刺之.

였다.

이로 보면 前者는 聖人の 말로써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後者는 聖人の 行動을 사람들이 그대로 본받다는 의미가 된다. 이 聖人을 일단 醫師로 본다면, 오늘날 韓醫師에게도 醫療指導權이 주어 지려는 時點에서 당연히 韓醫師는 먼저 日常生活이 一般人の 모범이 되어야 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湯液醕論』에서는 모든 治療手段이 단지 예비로 存在할 뿐, 實으로 쓰여짐이 없었던 上古를 理想으로 삼고 있다. 事實이 理想은 한번도 實現된 적이 없었다. 다만 흔히 中國人들을 古代 존중론자라고 하듯이, 現實을 과거 歷史의 어느 時點에 돌으로써 理惡은 일찌기 한번 實現되었던 것의 證明으로 되고 現實性이 보증되게 한 것이다

이제 理想의 世界에서 다시 現實로 눈을 돌려 보면, 疾病治疾過程은 疾病發生과는 反對의 과정이 된다. 그러므로 患者自身の 自覺證狀이 好轉되었다고 해서 疾病이 完快된 것은 아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느끼더라도 脈이나 色이 正常으로 될 때까지 治療하여야 하는 것이다.

第三節 轉女爲男法

흔히 우리는 20世紀의 最첨단科學時代를 살고 있다는 생각에서 과거의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生活方式를 모두 낡은 過去의 것으로, 또는 단순히 미개했던 時代의 미신으로 불러는 경향이 있다. 그 中の 하나가 轉女爲男法이다.

東醫實鑑에서 이를 살펴보면 「妊娠한 것을 처음 알았을때, 도끼를 孕婦의 잠자리 아래에 두어두고 孕婦가 모르게 하라.....」¹¹⁾고 하였다.

이는 結果論의으로만 본다면 事實 더무니 없는 迷信이다. 하지만 視角을 달리해서 그 當時 社會에서 이의 가치를 찾아보자.

먼저 東洋醫學은 人間을 태어나는 것으로서 完成되어진 것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人間을 完成되어져가는 存在로서, 受精되는 순간부터 生命이 다할 때 까지 끊임 없이 修行하는 存在로 파악하였다. 우리들이 老人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老人이란 人生의 完成에 가까운 거의 完成되어

져가는 存在이기 때문이다.

胎兒도 '十月養胎說'로 說明하듯이, 人生의 過程인 生, 長, 壯, 老, 己, 中에서 이미 生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존재로서 그 父母가 自身들의 뜻대로 胎兒의 生死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나이를 세는 습관이 갓 태어난 新生兒를 벌써 1살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轉女爲男法은 實으로 胎兒自身에 對한 것이 아니고, 胎兒를 孕胎하고 있는 孕婦나 그 주위 사람들의 복잡한 心理的 갈등을 해소하는 方法으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方法이 그 當時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認識되었고, 또 어느 정도 實行되었으며, 그리고서도 이들 方法이 轉女爲男에는 전혀 가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때 어떤 反應을 하였는지는 더욱 研究하여야겠지만, 家父長的 社會에서 철저히 아들을 낳아야만 한다는 心理的 압박감을, 약 280일이나 되는 妊娠기간 동안 解消하는 구체적인 方法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入試때면 차가운 校門밖에서 새벽부터 시험이 끝날 때까지 自身의 아들, 딸의 合格을 빌고, 또 옛이나 참쌀떡 같이 붙어 달라는 의미로 校門에다 이를 붙이는 것과 같다.

人間은 機械가 아니고, 또한 結果만 重要한 것이 아니라 그 過程도 重要하므로, 오로지 合理的인 思考로서 따뜻한 房 안에서 옛이나 참쌀떡보다는 영양이 충분한 불고기를 해놓고 기다릴 父母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경향이 어떻게 變하여 갈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方法이 짧은 한나절의 시험기간 동안의 心理的 압박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方法이며, 이렇고서도 不合格하였을 때 父母로서는 子息들에게 최선을 다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줄일 수 있는 方法인 것이다.

그러므로 過去의 轉女爲男法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方法 즉 父母의 편지에 따라서 胎兒의 生命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지배論理가

11) 許浚 : 東醫實鑑, p. 607.

아닌, 胎兒나 父母나 모두 人間으로서 同等하다는 思考를 읽을 수 있다.

Ⅲ. 結 論

東洋醫學의 人間觀과 이에 根據한 醫道를 黃帝內經을 中心으로 考察하고, 이로써 轉女爲男法에 對한 解釋를 시도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東洋醫學은 人間을 神機之物과 小宇宙로 규정하여, 人間 스스로 生命力을 지니고 巨大한 生命體인 宇宙와 力動的 平衡을 유지해가는 存在로 파악하였다.

2. 代表的인 人間象으로 平人을 들 수 있으며, 醫師도 平人으로서 他人의 모범이 되는 삶을 영위해야 한다.

3. 健康과 疾病은 力動的 平衡狀態를 유지하는 살의 과정에서 發生하는 自然스런 兩面이므로 醫學은 治療醫學보다는 豫防醫學을 높이 평가

가하고, 最高 理想은 治療醫學이 쓰여질 必要가 없는 상태이다.

4. 轉女爲男法은 胎兒드 하나의 人間으로 認定하므로써, 胎兒보다는 胎兒 주변인들의 心理的 갈등을 解消하는 方法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

參 考 文 獻

1. 金完熙: 新生理學秘訣, 서울, 慶熙大學校韓醫科大學韓方生理學教室, 1970.
2. 李成範·具閔瑞譯: 새로운 과학과 文明의 轉換, 서울, 법양사출판부, 1985.
3.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杏林出版社, 1976.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5.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6. 老子: 道德經.
7.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8. 胡澍: 黃帝內經素問校義.